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2018년 11월 13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12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1. 12.(월)	담당부서	산업부 전자부품과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과장	박영삼 과장(044-203-4270) 송완호 팀장(02-2110-2444) 김항곤 과장(02-3150-2048)	담 당 자	배은주 사무관(044-203-4274) 이재곤 사무관(02-2110-2791) 정승화 경감(02-3150-1897)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안양시 손 잡는다!

- "국민생활연구" 일환, 320억원 규모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본격 착수 -
-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와 함께 기술개발 실증 및 조기적용도 추진 -

□ 가족과 함께 시장에 갔던 ○○○씨는 잠깐 사이 둘째 △△군이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 실종신고와 인근에 방송을 하고서도 10시간이 지나서야 경찰관이 직접 CCTV를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군을 찾게 되었다. 인근의 CCTV가 실종아동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 경찰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빨리 아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 경찰청(청장 : 민갑룡)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국민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 **실종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안심 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이하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17년 기준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천여 명으로 **매년 실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실종현장에서의 탐문수사 등 **현재 대응체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장 정보의 파악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연결**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써,

○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환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 이에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은 **향후 5년간 총 320억 원**(과기정통부 200억 원, 산업부 60억 원, 경찰청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 **복합인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출동경찰이 활용하는 **착용기기나 통합관제시스템 등에 실증**하는 한편, 실제 활용을 위해 **법·제도 정비, 민간기업 기술이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무부처	주관연구기관	주 요 내 용
과기정통부 (총괄)	KIST (총괄)	최적화된 신원분석 및 추론을 위한 복합인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산업부	연세대학교	현장 출동요원의 사용성을 고려한 국민안전 지킴이 디바이스 개발
경찰청	에스큐아이 소프트(주)	기술 적용 플랫폼 구축과 실적용을 위한 실증 시범서비스(Living-Lab)

□ 한편,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현장 중심 실증과 적용·확산**을 위해 **안양시**(시장 : 최대호)와 **안양동안경찰서**(서장 : 김진태)가 **기술개발 초기부터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들이 기술개발 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총괄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양시** 그리고 **안양동안경찰서**는 **11월 13일(화) 안양시청**에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과 실증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부처 간의 유기적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개요
2. 복합인지기술개발 업무협약 및 민관 합동 워크숍 계획
3. 카드뉴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배은주 사무관(☎044-203-42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곤 사무관(☎ 02-2110-2791), 경찰청 정승화 경감(☎ 02-3150-189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익재 단장(☎ 02-958-57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실종아동 수는 연간 2만여 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자 수는 연간 1만9천여 명으로 **매년 실종인원 증가 추세**

○ 실종아동 및 치매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귀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 신원확인 기술개발 요구** 증대

* (복합인지기술) 공간, 시간, 장비 등을 통한 다수의 정보를 융합하여 인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추적, 추론 및 탐색이 가능토록 하는 인지기술

○ **실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인지기술개발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국민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의 신원확인 기술개발 및 공공서비스 고도화**

○ **(기간/예산)** ‘18년~’22년(5년) / 총 320억원(‘18년 33억원)

* 과기정통부 200억원, 산업부 60억원, 경찰청 60억원

○ **(추진내용)**



붙임 2 **복합인지기술개발 MOU 체결 및 민관 합동 워크숍 계획**

□ 개 요

○ 실종아동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참여기관 워크숍** 개최

* **(기간/사업비)** '18년~'22년(5년) / 320억원(과기정통부 200억, 산업부 60억, 경찰청 60억)
* **(추진경과)** 다부처 공동사업 선정('17.3월)→공고('18.3월)→과제선정 및 협약체결('18.7~9월)

□ 주요내용

○ **(일시/장소)** '18. 11. 13.(화), 14:00~16:20 / 안양시청 3층 상황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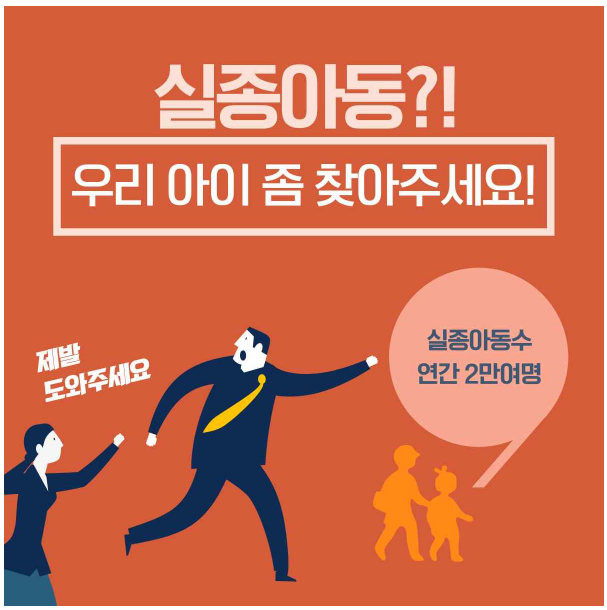
○ **(참 석 자)** 총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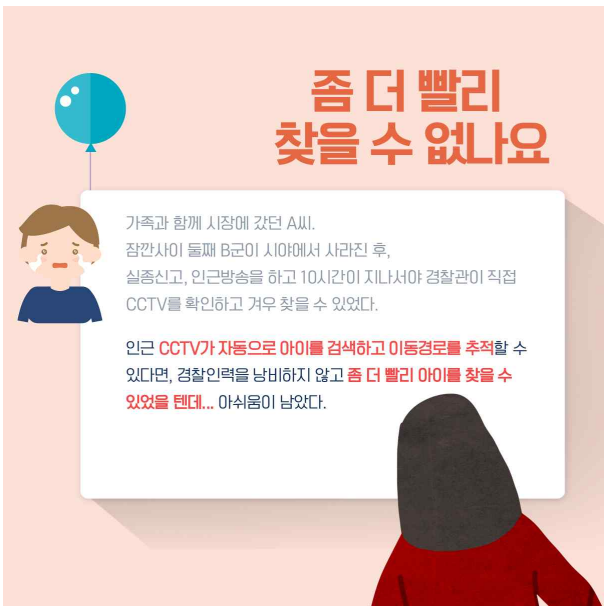
- **(정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민생활연구팀장, 산업부 전자부품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10여명
- **(실증기관)** 안양시장,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10여명
- **(수행기관 등)**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연구재단, KIST, 연세대학교, 에스큐아이소프트(주) 및 참여기관 관계자 등 3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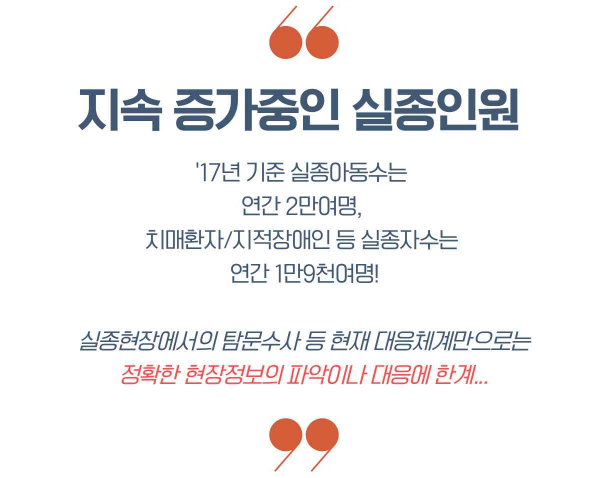
□ 세부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20 (20분)	총괄연구기관 – 실증기관 간 MOU 체결 (KIST - 안양시 - 안양동안경찰서)	MOU 관계자 (3층 안양시장실)
14:20~14:22 (2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KIST)
14:22~14:30 (8분)	인사 말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안양시 등
14:30~14:35 (5분)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소개	총괄과제 연구책임자(KIST)
14:35~15:20 (45분)	과제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과제별 15분 내외)	과제별 연구책임자
15:20~16:00 (40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6:00~16:20 (20분)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및 시연	참석자 전원 (7층 안양시 U-통합상황실)

붙임 3 카드뉴스


실종아동?!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실종아동수
연간 2만여명


좀 더 빨리
찾을 수 없나요
가족과 함께 시장에 갔던 A씨.
잠깐사이 둘째 B군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
실종신고, 인근방송을 하고 10시간이 지나서야 경찰관이 직접
CCTV를 확인하고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인근 CCTV가 자동으로 아이를 검색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면, 경찰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빨리 아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지속 증가중인 실종인원
'17년 기준 실종아동수는
연간 2만여명,
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 실종자수는
연간 1만9천여명!
실종현장에서의 탐문수사 등 현재 대응체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정보의 파악이나 대응에 한계...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법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이 때.
국민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생활연구"에서 출발한 정책 고민의 결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면!"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손잡고 나섭니다!

지능형 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복합인지기술개발이 추진됩니다.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이란

대상자의 현재 얼굴정보 뿐만 아니라
시간, 행동, 장소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연결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써,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예측하고 위치추적**,
장기 실종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변환하여 인지**도 가능!



향후 5년간 총 320억원 투입

원천기술 + 장비 + 관제시스템

1 주무부처 : 과기정통부(총괄)
주관기관 :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적화된 신원분석 및 추론을 위한 복합인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2 주무부처 : 산업부
주관기관 : 연세대학교
현장 출동요원의 사용성을 고려한 국민안전 지킴이 디바이스 개발

3 주무부처 : 경찰청
주관기관 : 에스큐아이소프트(주)
기술적용 플랫폼 구축과 실적용을 위한 실증 시범서비스(Living Lab)

GO! 현장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부터 실제 현장 검증과 조기적용 협력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섭니다.

국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